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3면	철원군-도교육청, 국방산업 기술인재 양성 힘 모은다	1
江原日報	16면	철원군-도교육청 국방과학고 육성 협약	1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이현종(왼쪽) 철원군수·엄기호(철원) 도의원	2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2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홍성기(위 왼쪽) 도의원·전성열(위 오른쪽) 농협 홍...	2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2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2024 오늘 여정 마침표, 그리고 '다시 빛나자'	3
江原日報	12면	"올림픽 폐막 앞두고 이별 아쉬워요"	3
江原日報	12면	강릉 옥계항, 컨테이너 전용 부두 개발 요건 충족	4
江原日報	14면	동해 전천 더 안전해진다	4
강원도민일보	06면	"소방차 소리에 화들짝" 화재 취약 전통시장 상인 불안	5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 현행 8개 선거구 유지' 여야 잠정합의안 선관위 제출	5
江原日報	01면	춘천·원주·강릉 6만여가구 재건축·재개발 길 열렸다	6
江原日報	04면	춘천·원주·강릉 6만여가구 재건축·재개발 길 열렸다	6
江原日報	10면	"교육·산업·문화 선도 춘천 엑스포 최적지"	7
江原日報	13면	인제 도시재생으로 소멸 위기 극복	7
강원도민일보	06면	춘천교대 '글로벌대학30' 도전 ... 통합 가능성 염두 내부 의...	8
강원도민일보	12면	옥계항 국제항로 일본산 비료 원료 첫 수입	8
강원도민일보	14면	삼척시 도계 120세대 공공주택 건립 박차	9
강원도민일보	17면	'양구사과' 농가 지원 고품질·명품화 나선다	9
江原日報	10면	"교육·산업·문화 선도 춘천 엑스포 최적지"	10
강원도민일보	06면	오늘 영동중심 많은 눈... 일부지역 대설예비특보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대 총장 투표 비율 매듭지어야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규제 완화 고민을	12
江原日報	19면	[사설] 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저력, 지역발전 동력으로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사랑의 온도탑 목표 달성, 나눔의 온기 지속돼야	14

2024 02 01 ()

23

강원도민일보

철원군-도교육청, 국방산업 기술인재 양성 힘 모은다

한국국방과학고 신설 업무협약

학생 유치·취업·정주기반 조성

철원군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1일 철원군청 상황실에서 한국국방과학고(현 김화공고)의 신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했다.

이날 양 기관은 국방분야 전문 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한국국방과학고를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타지역 우수학생 및 교·강사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국방산업 분야 최첨단 실습실 구축 및 최신식 기숙사 신축 등을 담당한다.

철원군은 △타지역 우수 학생 통학 여건 및 기숙 환경개선 △한국국방과학고 졸업생의 취업·정주기반 조성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철원군은 31일 철원군청 상황실에서 한국국방과학고(김화공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신경호 도교육감과 이현종 철원군수, 엄기호 도의원, 정문걸 철원교육장, 허양욱 김화공고 교장 등이 참석해 미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동의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미래 국방산업 기술인재를 지역에 유

치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정주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신경호 교육감은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 철원군에 한국국방과학고를 신설해 전문적인 국방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으로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2024 02 01 ()

16

江原日報

철원군-도교육청 국방과학고 육성 협약

국방산업 교육과정 본격 준비 2026년 신입생 선발 목표
타 지역 우수 학생 통학 여건·기숙환경 개선 등 추진

【철원】철원군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래 국방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나선다.

군과 도교육청은 지난 31일 철원군청 상황실에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이현종 철원군수,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문걸 철원교육장, 허양욱 김화공고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국방과학고 신설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김화공고의 교명을 ‘한국

국방과학고’로 변경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결정했고 2026년부터 첫번째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타 지역 우수 학생·교사·강사 유치와 국방산업 분야 최첨단 실습실 구축 및 최신식 기숙사 신축 등 국방산업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준비를 본격화한다.

철원군도 한국국방과학고 신설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 및 타 지역 우수 학생의 통학 여건 및 기숙환경 개선, 졸업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철원군은 지난 31일 철원군청에서 한국국방과학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 지역 취업 또는 정주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현종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미래 국방산업 기술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정주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철원 한 한국국방과학고 신설로 국방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호기자 mantough@

강원도민일보

2024 02 01 ()

17



이현중(왼쪽) 철원군수·엄기호(철원) 도의원은 1일 오전 11시 군청에서 열리는 철원군이장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1 ()

18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은 1일 오후 2시 고성 토성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현장에 방문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1 ()

15

오전 10시 홍천문화원에서 열리는 제63기 홍천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1 ()

18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일 낮 12시 속초시 대포

동경로당에서 열리는 대포동경로당 연시총회에 참석한다.



홍성기(위 왼쪽) 도의원·전성열(위 오른쪽) 농협



홍천군지부장·심영주 홍천농협 조합장은 1일

강원도민일보

2024 02 01 ()

01

강원2024 오늘 여정 마침표, 그리고 ‘다시 빛나자’

GANGWON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오늘 폐회식 강릉하키센터 광장
식전 DJ공연·올림픽기 하강 진행
2018평창올림픽 유산 활용 눈길
피겨 등 구름관중 흥행도 성공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진 전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축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가 14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아시아 최초로 열린 강원2024대회는 이날 오후 8시 강릉하키센터 보조경기장 앞 광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또 한편의 드라마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전세계 78개국 청소년 1800여명의 선수들은 강릉·평창·정선·횡성 등 4개지역 경기장에서 81개 금메달 보다 소중한 도전과 용기를 경험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 개막 당시 폭설과 한파로 경기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경기관람과 각종 문화축제 등에 연인원 50만명이 몰린 성공적인 흥행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

히 제2의 김연아-아사다마오 한일대결로 주목받은 2008년생 동갑 신지아와 시마다의 피겨스케이팅 경기는 1만 2000여명의 구름관중이 몰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평창알펜시아 일대에 조성된 슬라이딩센터를 비롯한 설상종목은 동계스포츠 사상 첫 출전한 ‘눈 없는 나라’ 선수들의 도전이 이어지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특히 2134명의 자원봉사자들은 2018평창에 이어 강원2024 성공개최의 숨은 주역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 폐회식은 1일 ‘Shine again’ (다시 빛나자)를 주제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최중구 강원2024조직위 대표위원장을 비롯해 선수단, 자원봉사자 및 관람객 등 1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오후 7시30분 유명DJK. 헤르츠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각국 선수들이 행사장에 들어오며 공식행사가 시작된다. 대륙별·종목별 선수대표 6명이 자원봉사자 6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전달하고 올림픽기하강식을 갖는다.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장은 “IOC는 대회운영과 시설, 자원봉사자, 관람문화에 대해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며 “는 2018평창의 정신을 계승한 이번 대회는 더욱 큰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폐회식 당일 영동지역 눈예보가 내려지자 긴급회의를 갖고 “끝날 때까지 적설과 결빙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원2024특별취재단/박창현·심예섭

▶관련기사 4·5·20면

2024 02 01 ()

12

江原日報

“올림픽 폐막 앞두고 이별 아쉬워요”

선수단 귀국 준비 분주... 기념 촬영하며 추억 쌓아
자원봉사자 만남 기약 SNS 공유·번호 주고받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폐막을 하루 앞두고 강릉 선수촌과 자원봉사자 숙소 일대는 이별을 준비하는 이들의 아쉬움으로 가득 찼다.

지난 31일 강릉원주대에 마련된 선수촌 일대는 선수단의 귀국 준비로 분주했다. 선수들은 숙소 창문에 걸었던 국기들을 거둬들이며 대

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실감했다.

일부 선수들은 선수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추억을 하나라도 더 담아가기 위한 기념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이곳 선수촌에는 대회 기간 선수 1,700여명과 대회 관계자 900여명 등 2,600여명이 머물렀다. 앞서 경기를 마

친 선수들은 이미 귀국하면서 대회 초반과는 다른 쓸쓸함마저 느껴졌다.

선수들을 위한 선물도 전달됐다. 삼양식품은 귀국을 앞둔 선수들을 위해 ‘불닭 굿바이키트’를 전달했고, 선물을 받은 선수들은 조직위 및 기업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

아이스하키에 출전한 제니 베켄(16·노르웨이)양은 “선수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라면을 선물로 받게 돼 고향 친구들과 함께 가서 먹을 계획”

이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숙소인 관동대 기숙사에서조차 짐정리가 한창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직무에 따라 길게는 3~4주가량 함께 지냈던 만큼,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SNS를 공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주고받았다.

김현진(24·경기도 성남)씨는 “이번 봉사료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는데 꼭 다시 모이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강원2024취재단=류호준·권태명기자

江原日報

2024 02 01 ()

12

강릉 옥계항, 컨테이너 전용 부두 개발 요건 충족

시, 용역 중간보고회
항만 개발 방안 등 논의

【강릉】국제항로 서비스에 나선 강릉 옥계항이 컨테이너 전용 부두로의 개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릉시는 지난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옥계항 개발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용역사와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협업해 수행한 옥계항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를 예측, 이 같

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용역에 착수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의견을 교환하며 옥계항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왔다.

옥계항은 국제항로 서비스에 나선 지 4개월 만에 16항차 1,641TEU(3만2,883.07톤)의 목재펠릿 수입 실적을 냈을 만큼 컨테이너 무역항으로의 잠재력을 지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2025년에 있을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과 주요 개발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및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더욱이 옥계항은 이날 일본산 바이오비료 원료 수입에 성공하며 국제무역 거점을 향한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그동안 일본산 비료 원료는 강릉의 한 기업이 인천항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뒤 육상으로 운송, 막대한 물류비를 부담해 왔지만 이번 수입으로 지출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정익기기자

江原日報

2024 02 01 ()

14

동해 전천 더 안전해진다

산책로 주변 CCTV·비상벨 설치 등 인프라 확충
시 “사고 예방·정주환경 개선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

【동해】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친수 공간 등이 갖춰져 낮에는 물론 밤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동해 전천 일원의 안전 인프라가 대폭 강화됐다.

2015년 마무리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힐링 쉼터이자 생활체육 공간으로 변신한 전천은 올 3월1일 열리는 3·1절

기념 동해시민 건강걷기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가 개최되는 등 시민들의 힐링 쉼터이자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찾는 것에 비해 방법용 CCTV 등 치안 및 안전시설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4억5,000만여원을 들여 산책로 등 왕복 10km 구간에 CCTV 38대, 비상벨 13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생활 밀착형 CCTV와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재난안전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등 도시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동해시 안전정보센터에서는 CCTV 669곳 1,322대, 비상벨 280대를 운영, 각종 사건사고

사전 예방 등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채시병 시 안전과장은 “이번 CCTV, 비상벨 확충으로 안전 사고 예방은 물론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하고 빈틈없는 관제로 치안 불안을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명록기자 amethy@

2024 02 01 ()

06

강원도민일보

“소방차 소리에 화들짝” 화재 취약 전통시장 상인 불안

충남 서천시장 등 화재 잇따라
“소방서 점검 불구 취약점 미조치”
춘천시 “화재보험-공제 가입 홍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강원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은 점점 줄어드는 손님과 연이어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로 걱정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 30일 만년 춘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 중인 김모(53·여)씨는 해마다 줄어드는 손님으로 힘든 와중에 잇따라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로 걱정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솔직히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한 것 같다”며 “손님도 점점 줄어 들고 있고 여기저기서 불까지 난다고 하니 큰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30년 넘게 장사를 이어온 이모(68·여)씨는 “매년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작년 설 명절 시기랑 비교했을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다”며 “요즘에는 불도 많이 난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소방차



권 입춘 강원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겨울 추운 날씨에 연이어 발생하는 시장 화재와 손님 감소로 걱정이 큰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둔 31일 춘천의 한 전통시장에 냉이를 판매해 봄이 다가온 것을 느끼게 해준다.

들이 사이렌 켜고 지나갈 때마다 혹시 불 옮겨놓고 나갔는지 다시 확인해본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조모(59·여)씨도 한마디 꺼냈다. 그는 “시장에는 건물 주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

하는 것보다 월세로 가게를 운영하는 이들이 많아 소방서에서 점검을 통해 건물 화재 취약점을 세입자에게 이

기해도 일부 조치가 안돼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걱정이 이어지는 이유는 최근 속출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 때문이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활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인력 361명과 장비 45대를 투입, 9시간여만에 불을 꺾었다. 점포 292개 중 227개가 전소하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전 1시 22분쯤 태백시 황지동 황지자유시장 한 점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144개 점포가 밀집돼 있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화재알림시설이 작동, 초기진화 성공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따르는 전통시장 화재로 불안함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지자체도 나섰다. 춘천시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전통시장 내 상인들에게 화재보험과 화재공제 가입 안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혁 jhnp@kado.net

2024 02 01 ()

02

강원도민일보

‘강원 현행 8개 선거구 유지’ 여야 잠정합의안 선관위 제출

미세한 구역 조정 가능성 포함
춘천 기형선거구 해결은 무산
정개특위 이르면 내주 재심의

속보=22대 총선을 70일 앞두고 선거구 확정과 관련한 여야 잠정합의안이 도출, 강원 총선은 현행 8개 선거구(본지 1월 31일자 3면) 유지로 가닥이 잡

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강원지역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정해진 현행 선거구 구조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여야는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안한 ‘6개 시·군 통합안’은 심각한 대의 정치 훼손을 야기할 것이라ں 점에 공감

대를 형성해왔다”며 “이에 잠정합의안에는 강원도의 경우 현행 선거구 유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답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제출된 잠정합의안의 경우 시·도별 의석정수 등 기본적인 내용만이 담겨 있어 향후 확정 관련 논의에서 미세한 구역 조정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강원도내 선거구의 경우, 현행대로 치러지게 된 가운데 지난 21대 총선 당시 도출된 기형선거구인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선거구를 다시 떠안게 됐다. 춘천 선거구는 25개 읍면동 가운데 19개 읍면동이 갑으로 묶였다. 춘천을 선거구는 생활권과 지역정서가 다른 춘천 북부지역(6개 읍·면·동)과 철원, 화천, 양구 전역이 한데 포함되면서 기형선거구 논란을 낳았다.

이에 따라 도정지원은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 춘천 단독 분구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결국 선거인명부 작성 50일을 앞두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강원 총선 선거구는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히게 됐다.

한편, 선거구 확정과 관련한 여야 잠정합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내주 중 재심의에 나선다.

이세훈

江原日報

2024 02 01 ()

01

춘천·원주·강릉 6만여가구 재건축·재개발 길 열렸다

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존 원주 '구곡·단관'·강릉 '교동2지구' 등 3곳에

원주 '단계'·춘천 '퇴계 후평 석사 일대' 2곳 추가

속보=강원특별자치도 5개 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 6만3,000여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

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희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희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도내 5곳을 포함해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본보 2023년 12월11일자 1면 보도)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

강원자치도에서는 원주 구곡(141만㎡·8,895가구·공동주택 기준), 단관(100만㎡·6,145가구), 강릉 교동2지구(114만㎡·7,428가구) 등 3곳 이외에 원주 단계(5,424가구), 춘천 퇴계 후평 석사 일대(3만5,063가구) 등 2곳이 추가됐다. 모두 6만2,955가구

에 이른다. 추가된 지역은 단일지역으로는 100만㎡가 되지 않지만, 인접지역과 합산하는 경우 가능해지는 곳이다.

그동안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단일 택지 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밝혀 왔다. 서울=이무현기자

4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4 02 01 ()

04

6만여가구 재개발 길 열렸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시행령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구도심·유희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국토부는 여기에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실제로 재건축·재개발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 02 01 ()

江原日報

10

“교육·산업·문화 선도 춘천 엑스포 최적지”

육동한 시장 지방시대엑스포 후보지 현장 실사단 맞아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 현장 등 둘러봐... 이달 결과 발표

【춘천】속보=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에 나선 춘천시와 강원자치도(본보 지난달 15일자 10면 보도)가 엑스포 후보지 현장 실사단을 맞아 강력한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현장 실사단은 지난 31일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 건설 현장과 주경기장, KT&G상상마당, 야외공연장, 강원자치도체육회관 등을 둘러보며 메인 전시 행사

와 체험 및 공연 등의 부대 행사 개최 여건을 살폈다.

이날 육동한 춘천시장과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현장 실사단을 맞아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당위성과 경쟁력을 설명했다.

도와 시는 지방시대 엑스포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특별자치도 개최’의 특수성을 유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1회 부산, 2회 대전에 이은 권역별 순회 필요성도 강조되는 사안이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31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후보지 현장 실사단을 맞아 춘천 개최 당위성과 경쟁력을 설명했다.

다. 또 송암스포츠타운 주변 레저·문화시설 기반도 국민 참여 행사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 꼽히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

다.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와 6개 부처, 17개 시·도 및 교육청이 균형발전 정책 비전과 지방자치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다.

앞서 1회 부산 엑스포는 방문객 5만3,000명을 기록해 398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고 지난해 대전 엑스포는 4만4,000명이 방문하며 유치 효과를 누렸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대전 엑스포를 찾아 지역 균형 발전의 의지를 다졌다.

올해는 춘천과 울산광역시 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달 중 결과가 발표된다. 춘천은 실내 면적 1만1,000㎡의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을 주 개최 장소로 계획했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이 지방자치시대 모든 목표와 비전을 가져가며 교육, 산업, 문화 등 각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라는 점을 부각해 반드시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2024 02 01 ()

江原日報

13

인제 도시재생으로 소멸 위기 극복

원통웰컴센터 연말 착공 2026년 준공
기린 어울림플랫폼 올 상반기에 착공

【인제】인제군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다.

군은 2022년 국토교통부 지역특화사업으로 ‘북면도시재생사업’과 2021년 같은 부처의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을 통해 ‘기린도시재생사업’을 각각 유치했다. 원통에는 국·도비 총

185억원, 기린에는 국·도비 포함 85억원이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진다.

주민 주도로 추진되는 북면은 ‘병영문화도시 원통RE’를 테마로 군장병 진화 및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다.

도시재생사업 거점 시설인 원통웰컴센터는 2026년 말 준

공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한다.

원통웰컴센터는 군장병 면회객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와 다양한 편의시설 업무 공간 등을 갖춘다. 또 보행친화거리 및 병영문화거리, 원통맛길 및 골목환경 정비도 이뤄진다.

기린도시재생사업의 거점 시설인 어울림플랫폼도 올 상반기 착공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준공과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

기린의 경우 노후주택 개선, 골목길 정비, 생활SOC 구축으로 깨끗한 도심 이미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산물 개발과 어르신 돌봄 및 주민들의 경제활동 지원 등도 추진한다.

채희정 군 도시개발과장은 “주민이 중심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방문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2 01 ()

06

춘천교대 '글로벌대학30' 도전...통합 가능성 염두 내부 의견 수렴

내달 구성원 토론·공청회 계획

연세대 미래캠퍼스 재도전 나서

춘천교대가 글로벌대학30 사업 도전을 위해 '타 대학과의 통합' 가능성을 두고 내부 연구 및 구성원 의견수렴에 돌입해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교대는 통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는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대학은 이를 토대로 3월부터 구성원들과 토론회·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구성원대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학내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통합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춘천교대가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이유는 글로벌대학30에 도전할 경우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글로벌대학30은 선정된 대학 한 곳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춘천교대 주요 관계자는 "교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 경쟁력이 없어 결국 통합모델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대학을 흡수할 여건은 안 된다"면서 "아직 본부에서 방향성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춘천교대는 '강원대와의 글로벌대학 공동 신청'에 대한 찬반의사를 구성원들에게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결과 직원과 반교수 절반이 이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생의 경우 찬성률이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춘천교대 관계자는 "모든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비지정에 성공했으나 본

지정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연세대 미래도 재도전에 나선다.

연세대 미래의 경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예비지정 대학' 지위를 유지한 채 평가를 받는다. 연세대 미래 관계자는 "작년에 본 지정 도전 과정에서 받았던 피드백을 토대로 계획서를 보충 중"이라 했다.

한라대와 상지대, 가톨릭관동대 등 도사업 도전에 무게를 두고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연세대 미래 등 지난해 예비지정 대학 5곳을 비롯, 총 20곳을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오는 3월 22일까지 5쪽 이내의 혁신 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4월 중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민영

강원도민일보

2024 02 01 ()

12

옥계항 국제항로 일본산 비료 원료 첫 수입

시, 컨테이너 화물 22개 하역

국제 정기항로 조기안착 계획

항만물류 다변화 기폭제 기대

강릉시가 옥계항만 개발을 통해 환동해 복합물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우드펠릿에 이어 일본산 바이오비료 원료 수입이 이뤄져 항만 물류 다변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31일 일본산 바이오비료 원료 컨테이너 화물 22개 분량이 수입돼 하역됐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비료는 그 동안 강릉 지역 모 기업에서 인천항을 이용해 국내로 수입한 뒤 육상으로 강릉까지 운송해 왔다. 하지만 이날 옥계항 국제항로 서비스를 이용해 일본산 원료



31일 강릉시 옥계항에 일본산 바이오비료 원료 컨테이너 화물 22개 분량이 수입돼 항만 물류가 다변화되고 있다.

를 수입해 읍에 따라 직접적인 물류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이번 바이오비료 원료를 싣고 들어온 선박은 장금상선 소속 오사카 보이저호(7000톤급)로 일본~부산~옥

계를 오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컨테이너 국제항로 첫 취항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6항차 1640TEU의 우드펠릿을 필리핀 등에서 수입해왔으며 이번 일본산 바이오비료 원료가

수입됨에 따라 수입화물 품목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옥계항 컨테이너 국제 정기항로 개설·운영 협약 사들과 함께 동남아·미주 등지로 서비스 항로를 확대하는 등 옥계항 국제항로 서비스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러시아~옥계~부산~중국을 오가는 장금상선과 일본~부산~옥계를 오가는 흥아라인과 국제 정기항로 개설 업무협약을 맺고 컨테이너 운반선을 첫 취항했다.

시 관계자는 "옥계항에 주로 시멘트 벌크선이 입·출항했으나 컨테이너 국제항로 서비스 시작 후 지역 수출입 기업들의 이용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원권 기업들이 물류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을 통한 물류가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강원도민일보

2024 02 01 ()

14

삼척시 도계 120세대 공공주택 건립 박차

부지 감정평가·매입 절차 돌입
6월 중투심사 대비 하반기 착공
폐광기금 등 도비 확보 총력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삼척 도계지역을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로 선정한 가운데, 삼척시가 올해 사업 추진 본격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척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를 열

고, 삼척 도계지구(120세대)를 비롯해 강릉 입암지구(80세대)와 화천 신읍지구(50세대) 등 3곳을 대상 지구로 선정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안양)와 경상남도(하동)가 각 1곳씩 함께 선정됐다.

삼척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308억원(국비 12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147.8억원)을 들여 도계읍 도계리 206의 46번지 일원 8630㎡ 부지에 30년형 거주 통합공공임대주택 12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달부터 사업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 절차에 나선 것

을 비롯해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중앙투자심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건축 등 설계공모에 들어가 올 하반기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다만, 문제는 이번에도 내 3개 지구가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사업비 부담 등 이유로 도비 지원이 1개 지구에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는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에 적극 호소하는 한편, 도 공통분 폐광기금을 확보하는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

다. 또 도비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도비를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행정력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계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도계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설계 및 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서둘러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2 01 ()

17

‘양구사과’ 농가 지원 고품질·명품화 나선다

명품과원 기반 조성 경쟁력 제고
9000만원 투입 사과 묘목 지원
222개 농가 280억원 소득 기대

양구군이 올해 품질 향상을 통한 명품양구사과의 이미지 굳히기에 나선다. 군은 사업비 9000만원(군비 70%, 자부담 30%)을 투입해 사과과원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에 묘목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사과 묘목은 부사, 홍로, 시나노골드 등이다. 1주당 1만5000원, ha당 1300주까지 지원된다.

군은 올해 지역내 222개 농가에서 5040t의 사과를 생산해 28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사과를 비롯한 과수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명품과원 기반 조성(사업비 1억3300만원) △원에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4500만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7700만원) △무인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1억원) △이상기상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1억원) △과수 안정생산 관리 지원(1억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들 사업의 대다수는 사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명품과원 기반 조성 사업은 과원 조성·정비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묘목, 지주시설, 배수시

설, 관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과 묘목 지원, 명품과원 기반 조성 등 과수 농업의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7개 분야에 6억5000만원이다.

한편 양구사과는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2021·2022·2023년 연속 수상하면서 전국적으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시래기 사과 축제도 매년 10월 해안면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동명

2024 02 01 ()

江原日報

10

“교육·산업·문화 선도 춘천 엑스포 최적지”

육동한 시장 지방시대엑스포 후보지 현장 실사단 맞아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 현장 등 둘러봐... 이달 결과 발표

【춘천】속보=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에 나선 춘천시와 강원자치도(본보 지난달 15일자 10면 보도)가 엑스포 후보지 현장 실사단을 맞아 강력한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현장 실사단은 지난 31일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 건설 현장과 주경기장, KT&G상상마당, 야외공연장, 강원자치도체육회관 등을 둘러보며 메인 전시 행사

와 체험 및 공연 등의 부대 행사 개최 여건을 살폈다.

이날 육동한 춘천시장과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현장 실사단을 맞아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당위성과 경쟁력을 설명했다.

도와 시는 지방시대 엑스포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특별자치도 개최’의 특수성을 유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1회 부산, 2회 대전에 이은 권역별 순회 필요성도 강조되는 사안이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31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후보지 현장 실사단을 맞아 춘천 개최 당위성과 경쟁력을 설명했다.

다. 또 송암스포츠타운 주변 레저·문화시설 기반도 국민 참여 행사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 꼽히는 지방시대 엑스포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

다.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와 6개 부처, 17개 시·도 및 교육청이 균형발전 정책 비전과 지방자치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다.

앞서 1회 부산 엑스포는 방문객 5만3,000명을 기록해 398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고 지난해 대전 엑스포는 4만4,000명이 방문하며 유치 효과를 누렸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대전 엑스포를 찾아 지역 균형 발전의 의지를 다졌다.

올해는 춘천과 울산광역시 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달 중 결과가 발표된다. 춘천은 실내 면적 1만1,000㎡의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을 주 개최 장소로 계획했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이 지방자치시대 모든 목표와 비전을 가져가며 교육, 산업, 문화 등 각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라는 점을 부각해 반드시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2 01 ()

06

오늘 영동중심 많은 눈... 일부지역 대설예비특보

강릉·속초·고성·양양·동해·삼척 등

1일 강원도 전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31일 강원기상청은 도 전역이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31일 현재 강릉평지, 속초평지·고성평지·양양평지·북부산지·동해평

지·삼척평지·중부산지·남부산지 등에 대설예비특보가 발령됐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영동·산지 5~10cm(눈 많이 오는 곳은 15cm 이상), 강수량은 5~20mm이다.

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예정이니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도내 아침최저기온은 영서 -6~-1도, 영동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 4~8도, 영동 1~3도로 예보됐다. 박재혁

강원도민일보

2024 02 01 ()

/ 19

강원대 총장 투표 비율 매듭지어야

-첫 통합선거, 후보에 집중하도록 조속히 합의를

통합강원대학교를 이끌 총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교수 교직원 학생 사이에 투표반영 비율 문제가 여지껏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월 20일 치르는 첫 통합강원대 총장 선거 유권자는 모두 학내 구성원이지만, 거대국립대학교의 운영력과 비전 실천력은 강원지역사회의 오늘과 내일 향방을 가늠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본지에서는 '강원대 총장 후보자 릴레이기고'를 실으며 강원도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 중입니다.

내일(2월 2일)은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 후보자 등록 신청은 5, 6일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미 5명이 총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비전과 정책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름 가나다순으로 김광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유기억 생명과학과 교수, 정재연 경영·회계학부 교수, 주진형 의학과 교수, 최성웅 에너지자원·산업공학부 교수가 활동 중입니다. 가장 적합한 후보를 뽑아야 하는 책무를 진 유권자들이 후보 자체에 주목해야 할 시기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회,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삼자 측은 아직까지 투표반영 비율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총장 선거를 관리하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도 구성원 간 반영 비율 합의가 늦어지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도 나섰습니다. 본 후보 등록 전날인 2월 4일까지 비율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2월 20일 선거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글로벌대학에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통합력을 기반으로 춘천, 원주, 강릉, 삼척 4개 캠퍼스 중심의 특성화 육성을 제시해 선정됐습니다. 두 대학 통합에 따른 진통과 여파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나 이익의 유불리를 우선 따져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학이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메가시티를 선언했고, 대학내 기업 육성을 장려하면서 더 몸집을 키우는 요즘입니다. 지역, 지역대학이 급격히 쇠퇴하는 지경이기에 이해관계에 휘둘릴 정도로 사정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강원대는 대학교유의 사명에 충실한 동시에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도민이 부닥치는 여러 현실적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공의 이익만을 앞에 두고 고민해야만 답이 나올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양보가 없는 태도 역시 안 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01 ()

/ 19

고향사랑기부제 규제 완화 고민을

-양구군 민간업체 프로젝트 중단, 활성화 제약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도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농업을 비롯해 주민 소득창출에도 기여합니다. 도내 일부 지자체는 1년 동안 4억을 상회하는 등 안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출향 도민들의 관심도 커 향후 지자체 재정에도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책적 제약이 있어 기부제를 확산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도내 18개 시·군이 시행 첫해인 지난 1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52억 9403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 본청과 도내 18개 시·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52억 9403만 5700원을 모금했습니다. 일부 시군은 기부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취약계층치아교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소년 보호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쓰기로 하는 등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기부 한도 상향 조정과 같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기부금도 연간 500만원 한도로 제한돼 규모를 확대

하는 데 한계를 보입니다. 출향 도민을 대상으로 기부 독려 활동을 할 수 없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현지의 반응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기부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민간업체의 플랫폼 운영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인 '위 기브'를 중단시켰습니다. 법령상 민간 업체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운영을 막으면서 이 플랫폼에서 진행된 양구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캠페인이 중단됐습니다. 양구군은 지난해 1월 3일부터 나흘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1000여 만원을 모금하는 등 성과를 올렸는데, 운영 중단으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때문에 횡성군과 태백시는 민간 플랫폼 운영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당초 제도 시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민간 업체 참여도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면, 기부 한도를 재조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江原日報

2024 02 01 ()

/ 19

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저력, 지역발전 동력으로

전 세계에 꿈과 영감을 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동계청소년올림픽)의 폐회식이 1일 오후 8시부터 강릉 하키센터 보조경기장 앞 광장에서 개최된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과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열리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행사다. 강릉과 평창, 정선과 횡성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경기를 통해 기량을 뽐냈다. 이 대회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한 손님들은 선수들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린 행사였던 만큼 여러 국가의 국제 언론 저널리스트들이 현장을 찾아

한국과 강원특별자치도를 눈여겨봤다.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중국 신화통신은 '디지털 성화, 신묘함 있었다'의 기사를 통해 동

계청소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눈,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LED큐브 성화를 소개했다. 대만 CNA 역시 디지털 성화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대회 초반 폭설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알파인 스키 등 일부 종목 경기가 시간이 변동되기는 했지만 신속하게 대응했다. 홍콩 BNN브레이킹은 발 빠른 대처로 회복 탄력성을 보인 관계자들의 모습에 '올림픽 정신이 빛났다'고 보도했다. 다소 이탈자가 생겼지만 전국에서 모인 2,000여명의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 대회로 이끄는 데 한몫했다. 이들은 선수와 관람객들을 직접 대면하며 안내했다. 강원인들은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로 또

다른 자신감과 경험을 얻었다. 그 자신감과 경험이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는 동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즉,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유산을 지역은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에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강원인들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를 위한 한마음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조금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 공유와 협의·협조를 통해 모두가 공감

하는 일치된 목소리를 만들어 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 앞에는 풀어나가 할 여러 난제가 산적해 있다.

접경·폐광지역 활성화와 함께 동해안 지역

폐회식, 1일 오후 8시부터 강릉에서 열려

유·무형 자산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를

공유·협의·협조 통해 한목소리 내야

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자랑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됐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지역소멸 같은 당면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얻은 자신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대로 투영돼야 한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수장이 아니라 단체장을 뽑는 반쪽짜리 자치가 이뤄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지역은 여전히 인사와 예산 등의 권한 행사에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는 지역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선과 정책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 그 중심에 강원인들이 서자.

江原日報

2024 02 01 ()

/ 19

사랑의 온도탑 목표 달성, 나눔의 온기 지속돼야

강원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섰다.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를 기해 희망 2024 나눔캠페인 모금액이 86억5,361만원을 기록, 목표 85억3,000만원을 1억2,361만원 초과하며 101.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 해 1월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되는 희망나눔캠페인이 종료 하루를 앞두고 초과 달성됐다. 올해 캠페인은 지속적인 고물가로 인한 경기 불황과 자영업자 폐업 등에 따른 기부 위축으로 100도 달성이 불투명했지만 십시일반 모인 성금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온정 나눔에 동참해 준 도민과 기업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캠페인이 시작된 지 50여일이 다 되도록 강원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도민과 기업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 특히 도내 농협 등 금융권과 강원랜드, 블랙밸리CC 등 기존 기부자들의 기부금 증액과 함께 법인 현금기부 증가가 큰 힘이 됐다.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돌파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이뤘다는 점에서 가치가 더

욱 빛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의 긴급 생계나 의료, 가정환경 개선사업, 월동 난방 등에 전액 지원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소외된 이웃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기에 온정을 나누는 것은 더 소중하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유계식 도모금회장은 “고물가, 경기 침체 등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은 도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기적”이라고 했다. 기부 문화가 꼭 경기 상황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이다. 사랑의 온도탑은 사회 공동체의 배려심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다.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곧 있으면 설이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살펴보고 사회 공동체의 역할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명절이다. 지역경제 전반이 쪼그라들고 있으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선뜻 내미는 아름다운 정이 절실한 때다.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온기가 넘쳐 나기를 기대한다.